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8년 국내 10대 트렌드

목 차

■ 2018년 국내 10대 트렌드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18년 국내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	2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외 (2072-6211, ck1009@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8년 국내 10대 트렌드

■ 국내 10대 트렌드 선정

2018년 국내 정치·외교·통일, 경제, 산업·경영, 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국내 10대 트렌드

①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

2018년에는 남북대화 및 경협이 재개되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 남북 대화 및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정책적 결단,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서는 구체적·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② 4륜구동 경제 성장

한국 경제, 이제는 4-Wheel Drive(4륜구동)를 장착하여 안정적이면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성장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포함된 교육 및 노동 부문의 개혁을 명시적으로 부각하고 창의성 및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4-Wheel Drive 성장 정책을 제시한다. 일자리 확충이 중심인 소득주도 정책은 기업 성장도 중시되고 취약 가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기술 혁신은 강한 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스타트업과 기존 대기업 간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융합 R&D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개혁은 창의성이 존중받고 대학 자율성이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고용 유연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③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온도차 지속

수출 경기가 이끄는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지표경기의 회복 흐름이 유지되는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세가 부진하여 지표경기과 체감경기 간 괴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 경기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 경제 지표 또한 회복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수 산업은 부진이 지속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유가 오름세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 고용 부문의 개선세 미흡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증가 및 소비

진작책 마련이 필요하다.

④ 한중 해빙기 준비 본격화

한중간 사드갈등이 최근 양국 간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며 일단 봉합되었고,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완전해소 노력도 추진되었다. 향후 사드갈등이 해소된다면 우리의 對中 전략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對中 수출의 고급화가 가속될 것이다. 중국의 수요 변화에 맞게 하이테크 기술 품목 수출 증대뿐 아니라, 소비재의 고급화 추세도 예상된다. 또, 새로운 중국發 투자유치 산업 발굴이 늘어날 것이다. IT 등 콘텐츠 개발은 물론 로봇 등 혁신형 첨단 제조업 부문 발굴로 중국 자본 유치 가속이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형 산업구조로의 환경 조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로 진입하면서 한중간 기술격차도 향후 5년간 더욱 좁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통한 한중 간 인적교류의 질적 전환도 기대된다.

⑤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구성원 간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고용 불안·양극화·고령화 등 최근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고용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약 1.4%에 불과한 반면 EU는 약 6.5%로 나타나 선진국 대비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 대비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 창출 및 유희 인력 활동 등이 예상되고, 사회적 기업의 활동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복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로,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⑥ Tech-led Growth

2018년 국내 경제는 원가 부담 증대, 소비 개선 부진 등으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여 국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ICT 발달 등에 따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정부 차원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한편, 기술창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⑦ Building up K-Startup Ecosystem

2018년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혁신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창업 및 벤처를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유니콘 클럽(Unicorn Club) 진입과 유망기업 등장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

고, 서울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창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다양한 보완 정책들이 필요하다.

⑧ Generation Z의 시대

2018년 이후 Z세대가 사회 및 경제의 주력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2018년에는 Z세대 중 성인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과 가정의 소비패턴에 변화가 전망된다. 둘째, 모바일 기기가 주요매체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는 Z세대에게 사회 의사소통의 주된 통로는 모바일 기기인 반면 TV는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현재·가치 중심적인 의사결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Z세대의 주된 인생 모토는 율로(YOLO), 워라밸로 주변 시선, 사회적 구속·통념을 넘어서서 개인·현재·가치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Z세대가 경제 및 사회의 주축으로 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배분 및 전략이 필요할 전망이다.

⑨ Gig Economy 시대의 Flexicurity 실험

기업들이 정규직 형태의 고용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Gig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Gig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스마트폰 보급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인터넷 환경이 우수하고 4차산업혁명 육성 전략 등으로 Gig 경제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 유연한 고용 형태인 Gig 경제 도래는 노동 공급을 늘리고 노동 시장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창출 등 고용의 유연성 확대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는 방안으로 Gig 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Gig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⑩ Steep 소비

실질소득 정체 및 가구의 소형화로 인해 경제적이고 개인 효용(Utility) 극대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STEEP 소비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징으로 첫째, 물품을 소유하는 소비에서 공유형(Sharing) 소비로의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둘째, 건강을 고려하는 웰빙형(Toward the health) 소비행태가 심화될 것이다. 셋째, 고품질, 나만의 기능성 상품을 선호하는 실속형(cost-Effective) 소비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넷째, 경험하는 소비활동을 통해 가치를 느끼는 경험형(Experience) 소비가 심화될 것이다. 다섯째, 미래보다 현재 소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현재형(Present)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국내 정치·외교·통일, 경제, 산업·경영,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함
- 정치·외교·통일부문을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가 선정됨
- 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4륵구동 경제 성장’,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온도차 지속’, ‘한중 해빙기 준비 본격화’ 등 3개가 선정됨
- 산업·경영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 ‘Tech-led Growth’, ‘Building up K-Startup Ecosystem’가 선정됨
- 문화 부문에서 ‘Generation Z의 시대’, ‘Gig Economy 시대의 Flexicurity 실험’, ‘Steep 소비’가 트렌드로 선정됨

< 2018년 국내 10대 트렌드 >

분야	주제
정치·외교·통일	1.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
경제	2. 4륵구동 경제 성장
	3.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온도차 지속
	4. 한중 해빙기 준비 본격화
산업·경영	5.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
	6. Tech-led Growth
	7. Building up K-Startup Ecosystem
문화	8. Generation Z의 시대
	9. Gig Economy 시대의 Flexicurity 실험
	10. Steep 소비

2. 2018년 국내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

①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

- (의미) 2018년에는 남북대화 및 경협이 재개되어 ‘한반도 신경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평창 동계올림픽(29~25)을 계기로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김정은 北 노동당 위원장이 대남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어 北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전망
 - 1988년 7.7 선언으로 추진된 북방정책으로 남북경협이 처음 시작된 바와 같이 정부의 ‘新북방정책’ 추진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한반도 신경경제지도 구상’과 新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북한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 및 경제개발구 지정 등을 통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회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한반도 신경경제지도’ 구상 >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참고.

- (내용) 남북 대화 및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정책적 결단,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정책적 결단 : 남북경협을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정책적 판단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재개 가능
 -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
 - 남북경협 재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
 -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고려 :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
 -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간 민생협력분야인 남북경협 재개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할 필요
 - 특히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및 정세 안정을 견인하며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
 - 국민적 합의 :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
 -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에 바탕하여 남북경협 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기추진 경협 사업 재개를 통한 시장경제 교육 확대는 통일 비용 절감에도 주효하다는 통일 공감대 확대 노력 필요
- (시사점)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¹⁾’ 실현을 위한 구체적·단계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
-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도모

이해정 연구위원(hjlee@hri.co.kr, 2072-6226)

1)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 이를 위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 전략의 제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7).

② 4류구동 경제 성장

○ (의미) 한국 경제, 이제는 4류구동을 장착하여 안정적이면서도 견고한 성장세 확보

- 정부의 성장 정책인 4각축 개념에 교육 및 노동 부문의 개혁을 보완한 4류구동 경제 성장

- 정부의 성장 정책 4각축(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혁신 성장, 동반 성장 등)에 포함된 교육 및 노동 부문의 개혁을 명시적으로 부각
-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효과를 위해 필요한 창의성 및 생산성 향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노동 부문의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

○ (내용)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및 노동 부문의 개혁이 동반된 기술 혁신이 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

- 소득주도 성장 : 일자리 확충 및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 활성화 및 내수 확대를 견인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전체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

- 일자리 확충은 경제 여건의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기업 성장의 토대 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정부는 고용안정성이 낮은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하여 소득 안정성 제고에 주력
- 기업은 낭비적 근로 문화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

- 기술 혁신 : 기술 부문의 혁신에 따르는 생산성 향상이 강한 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력

- 기술혁신 성장은 성장잠재력 제고와 급변하는 경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첨단기술 개발 역력이 있는 기존 대기업이 민간 부문의 R&D 투자를 견인하는 만큼 이들의 기술 혁신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스타트업 기업과 기존 대기업간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융합 R&D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교육 개혁** :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비가 필수적
 - 창의성은 규격화된 기존 사회 운영 체제보다는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미래 사회 운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요건
 - 교육 시스템 역시 개인의 창의성이 더욱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진화되어야 하며 창의성 검증이 우수 인재 선별의 핵심 요소이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 검증의 최종 단계에 있는 대학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인재를 배출

- **노동 개혁** :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고용 유연화 추진으로 인공지능 및 로봇이 대체하는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
 - 급속한 기술 변화 및 불안한 경제 전망 등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금 조정, 고용 조정, 법·제도 조정 등을 수반하는 고용 유연화가 필수적
 -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등 노사관계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함

< 4률투동 경제 성장의 구성 요소 >

소득 주도	일자리 확충 & 사회안전망 확보
기술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 융합 R&D
교육 개혁	창의성 존중 & 대학 자율성 보장
노동 개혁	고용 유연화 & 노사관계 개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단기적인 성과 도출 매몰 탈피 및 확장적인 재정지출에 따르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

홍준표 연구위원(jphong@hri.co.kr 2072-6214)

③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온도차 지속

- (의미) 수출 경기가 이끄는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지표경기의 회복 흐름이 유지되는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세가 부진하여 지표경기과 체감경기 간 괴리가 지속될 전망
 -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수출 경기가 이끄는 국내 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경제성장률 등 지표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
 - 그러나 내수 산업의 회복 속도가 부진하고, 생활물가 상승 및 높은 체감실업률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과 지표경기 간 괴리가 지속될 전망
- (내용) 내수 부문 회복 부진, 물가 상승 및 고용 부문 개선 미흡 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회복 속도는 부진할 전망
 - 수출 경기 회복에 따른 경제 회복세 유지 : 글로벌 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출 경기 회복이 이끄는 전반적인 경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
 - 글로벌 경제 회복세 및 해외 수요 증가로 국내 수출 경기의 견고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수출 경기의 견고한 회복세 지속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등 국내 경제 지표 또한 회복 흐름을 유지할 전망
 - 내수 부문 회복세 다소 부진: 수출 산업 위주의 회복으로 내수 산업은 부진이 지속되고, 민간소비지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을 지속할 전망
 -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회복 분위기에, 수출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건설업 등 내수 산업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
 -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소득증가율, 고용 부문의 미약한 개선세 등으로 민간 소비 회복이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다소 부진하게 진행될 전망
 - 또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인상되며 1,400조원을 상회하는 가계부채의 이자비용이 증가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존재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 유가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가 상승하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전망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며 이에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일반 소비재 수입 물가 상승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휘발유 등 유류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고용 부문 개선 미흡:** 고용유발 효과가 적은 산업 위주의 경기 회복 및 건설·서비스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 부진으로 고용 부문 개선이 미흡할 전망
 -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수출 부문은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산업으로 경기 회복세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 특히,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 경기 둔화,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서비스업 등에서의 고용 확대 또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지출 >



자료 : 한국은행.

< 생활물가 상승률 및 체감실업률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체감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 이용, 체감실업률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 (시사점)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증가 및 소비 진작책 마련이 필요

신유란 연구원(yooran0111@hri.co.kr 2072-6240)

④ 한중 해빙기 준비 본격화

- (의미) 지난 2016년 7월 이후 16개월 동안 사드갈등으로 야기된 한중 양국 간 경제적 냉각 양상이 최근 양국간 대화를 통한 해소 노력이 가속
 - 사드갈등으로 발생했던 한중간 경제적 냉각 양상이 올해 10월 말 양국간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며 조건부로 봉합
 - 지난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배치 부지가 결정되면서 한중간 관계가 급격히 냉각했으나, 2017년 10월 31일 양국 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지면 일단 봉합됨
 - 올해 3월부터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 금지 처분 이후 국내 경제는 올해 8조원 이상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²⁾
 - 다만,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등 사드갈등 봉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완전 해소까지는 여전히 양국간 긴밀한 소통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용) 향후 사드갈등이 해소되면 교역, 인적교류 등 그동안 중국과의 양적 교류 편중에서 점차 중국의 고급화 수요에 맞게 경제 전반에 걸쳐 對中 전략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
 - (對中 수출 고급화 가속) 중국의 고급제품 수요 변화에 맞는 對中 수출 전략으로 대거 전환될 것으로 보임
 - 최근 對中 수출은 2017년 1~11월 누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했으나, 이중 소비재 부문의 對中 수출은 동기간 31.4% 급감함
 - 중장기적으로 사드갈등 이후 한국의 對中 수출은 하이테크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³⁾될 뿐 아니라, 소비재의 고급화 추세도 가속될 전망
 - (새로운 중국發 투자유치 산업 발굴 중대) 첨단형 유치 산업 발굴 중대 기대
 - 2009~2016년 누적 기준, 중국의 對한국 산업별 직접투자 중 서비스업은 부동산·임대 및 문화·오락 부문이, 제조업은 기계·장비 부문에 투자 비중이 편중⁴⁾
 - 이에 따라, 향후에는 IT·인터넷 등을 융합한 콘텐츠 부문 투자 유치와 함께, 로봇 등 혁신형 첨단 제조업 분야 발굴을 통해 중국 자본 유치 중대가 예상

2)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사드갈등으로 발생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8.5조 원으로 명목 GDP 대비 0.52%에 이른다고 추정.

3) OECD 분류에 따라 계산하면, 하이테크 기술 품목에서 우리의 對中 수출 비중은 2000년 20.6%에서 2016년 43.7%로 보다는 크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하이테크 기술 부문의 제품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

4)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6년 누적기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산업별 전체 FDI 중 중국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임대 투자 비중이 15%, 문화·오락이 17.1%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가 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혁신형 산업구조로의 환경 조성) 중국의 기술추격에 맞설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 플랜 마련이 시급해 질 것으로 보임
 - 시진핑 집권 2기로 진입하면서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등 당초 발표했던 차세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실현 플랜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
 - 2016년 현재, 1년으로 평가된 한중간 기술격차도 향후 5년간 더욱 좁혀질 전망
 - 이에 따라, 120개에 이르는 국가전략기술의 혁신화 과정을 통해 혁신형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
- (인적 교류의 질적 전환)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고소득 관광객을 겨냥한 콘텐츠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7년 3월 한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3~10월 사이 방한 중국인은 238만 명으로 2016년 동기간 595만 명에 비해 약 60%가 감소
 - 향후 관광 산업은 요우커에 대한 편중된 마케팅에서 탈피, 개별 관광, 스마트 관광 등 고소득 관광객의 실수요에 맞는 혁신형 콘텐츠 개발 확대에 전환이 기대

< 한중 사드갈등 해소 일지 >

구분	주요 내용
'16.7.13	- 한미, 사드배치 부지 결정 공식 발표
'17.4.26	- 사드 전격 배치 착수
'17.10.13	-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17.10.31	- 한중 외교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발표
'17.11	- APEC 정상회의중 한중 정상회담
'17.12	- 한중 정상회담(베이징)
	- 한중 FTA 서비스 추가 협상 개시
'18. 2	- 평창 동계올림픽 중국 고위급 인사 참석

자료 : 외교부, 언론 종합.

< 한중 간 기술 격차 추이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1) 최고기술 국가와의 격차(년).
- 주2) 과학기술 분야 샘플수는 2008년(90개), 2010년(95개), 2012~'206년(120개).

- (시사점) 향후 한중간 수출 및 투자 등 교역구조의 질적 전환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추격을 대비한 새로운 중장기적 對中 경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재진 연구위원(hzz72@hri.co.kr 2072-6225)

⑤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

○ (의미) 사회적 기업은 구성원 간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 한국 사회가 고용 불안·양극화·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최근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부상

- 사회적 기업은 구성원 간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경제와 유사하지만,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우선 추구, 시장에서 경쟁하되 시장·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차이
-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분류한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기업)은 협동조합 등 일반 사회적 경제기업⁵⁾과 농협 등 8개 개별협동조합⁶⁾을 포함

○ (내용)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현황 및 국제비교) 한국의 사회적 기업 고용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약 1.4%에 불과해 선진국 대비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미흡

- UN은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수립했으며, EU 등 주요 선진국도 사회적 경제를 당면한 경제 구조적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 EU⁷⁾의 경우 전체 고용 인구 중 6.5%인 약 1,400만 명이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이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한국은 약 37만 명이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중 1.4%에 불과

- (기대 효과: 고용 창출)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 대비 취업유발계수가 높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6)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영업조합.

7) 단, EU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에 협회, 공제회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보다 범위가 포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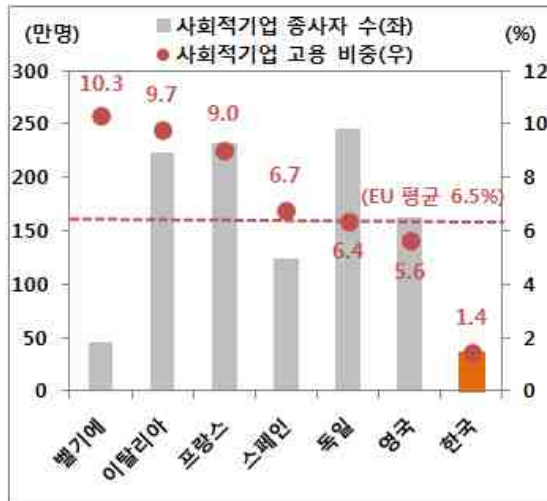
아 고용 창출 및 유휴 인력 활동 등이 예상

-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인 협동조합은 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가 38.2명으로 전체 산업 12.9명보다 높음
- 특히 사회적 기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어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

- (기대 효과: 복지 제공) 사회적 기업의 활동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복지 효과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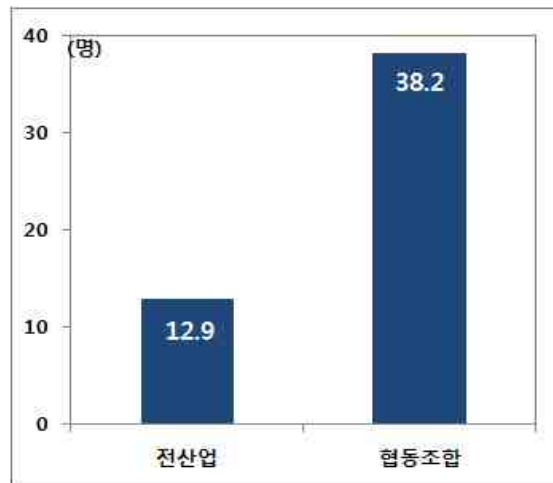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창출효과가 나타나 빈곤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고용 비중 국제 비교 >



자료 : 기획재정부, CIRIEC⁸⁾.
주 : 2015년 기준.

< 사회적 기업 중 협동조합의 취업유발계수 >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최종수요 10억원 발생시 유발되는 취업자 수.

- (시사점)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로,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

백다미 연구위원(dm100@hri.co.kr 2072-6239)

8) CIRIEC(2015), 'The weight of the social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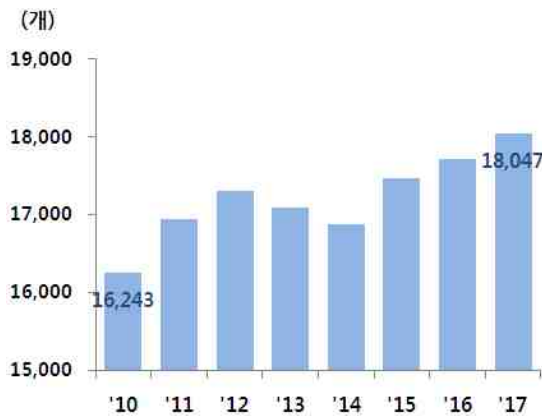
⑥ Tech-led Growth

- (의미) 원가 부담 증대 등 리스크 요인 극복을 위해 기술 및 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나타날 전망
 - 2018년 국내 경제는 원가 부담 증대, 소비 개선 부진 등으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여 국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반면 기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ICT 발달 등에 따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내용) 원가부담 증대, 수출과 내수의 비동조화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은 확대되어 기술혁신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는 시도가 확대될 전망
 -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으로 기술혁신은 가속화될 전망
 - ICT와 물적 인프라 등의 보급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⁹⁾
 - 정부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지원 확대, 민간주도의 벤처인증 시스템 등의 정책을 통해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 정부의 혁신활동 지원 확대 등으로 기술혁신의 유인이 강화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기술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스마트 팩토리 등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인건비 상승 및 원가 부담 증대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기술혁신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전망
 - 스마트 팩토리 등 기술 융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9) 2016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의 구성 지표중 물적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은 30개 OECD 국가 중 5위로 상위권으로 평가.

- 기술창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기술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제도적·물적 인프라 개선 등에 따라 기술혁신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기술창업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산업 및 국가의 전반적인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Inno-Biz 인증기업 수 >



<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COSTII)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주1) Inno-Biz 기업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2) 2017년은 10월 말 기준.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는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의 5개 부문에 대한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 비교에 활용됨.

- (시사점)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혁신이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국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기업은 기술혁신에 있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고 산·학·연 및 업계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함

김수형 연구원(soohyung@hri.co.kr 2072-6217)

⑦ Building up K-Startup Eco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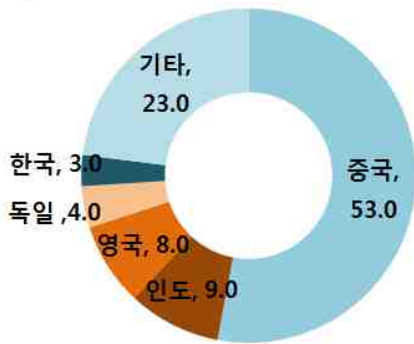
- (의미) 2018년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혁신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창업 및 벤처를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의 원년이 될 전망
 - 혁신 창업 및 벤처활성화 등 그간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통해 벤처 투자액과 벤처 기업 수는 최고의 호황기를 기록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
 - 신규벤처투자 금액과 벤처 기업 수는 각각 2012년 1.2조원, 2.8만개에서 2.3조원, 2016년 3.3만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그러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0.13%로 미국 0.33%, 중국 0.24%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제 규모 등에 비해 부족한 상황
 - 민간 참여 확대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 스타트업 핫플레이스 조성 등을 통해 질적으로 강화된 혁신적 창업 기반이 구축될 전망
 - 아시아 최초의 구글 캠퍼스를 서울에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 전진기지를 적극적으로 육성
- (내용) 글로벌 유니콘 클럽 진입과 유망기업 등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유망한 창업 도시로 부상 등이 '한국형 창업 생태계 구축'의 주요 추진력으로 작용할 전망
 - 글로벌 유니콘¹⁰⁾ 클럽(Unicorn Club) 진입과 유망기업 등장 :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클럽에 가입되고 미래 잠재성을 가진 기업 등장 등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글로벌 유니콘 클럽에 가입된 총 기업수 217개 중 국내 기업은 쿠팡, 옐로모바일 등 2개에 불과하나, 글로벌 유니콘 클럽 진입에 의미를 부여
 -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유니콘 클럽 106개의 기업 가치는 중 국내 기업의 비중은 3%를 차지
 -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위메프, 티켓몬스터, 네시삼십분 등 모두 기업가치가 1조원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분석
 - 정부의 적극적 지원 : 기술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10) 유니콘 기업은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의미.

- 정부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세부 추진 방향을 설정함
-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 : 실리콘 밸리, 뉴욕, 런던 등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상위 20개 지역이외 서울을 차순위(Runners Up) 지역으로 선정¹¹⁾
 -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에서 발표한 2017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리포트 2017년에 따르면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향후 상위 20개 지역을 추월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언급
 - 서울의 창업 생태계 성장 지수는 4.5로 아시아의 심층분석(Deep Dives) 지역 중 하나로 보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지역별 기업가치 비중 현황 >

(단위: %)



자료 : CB insight.
주 : 2017년 9월 19일 현재 기준.

< 정부의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 >

분야	내용
혁신창업 친화적 조성	-기술인력 창업도전 환경 조성 -민간 중심 혁신 기업 선별 -죽음의 계곡 극복과 성장 지원
벤처투자 자금 확충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신보 기보, 민간금융사 대출 20조원 -세제 지원 및 규제 혁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회수시장 기능 회복과 활성화 -기술형 M&A 활성화 -재도전·재창업 지원

자료 : 관계부처 합동,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방안, 2017.11.2.

- (시사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다양한 보완 정책들이 필요
 - 특히, 실패에 관대한 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 활성화, 성공한 창업가의 경험 공유, 경력단절 여성과 스타트업 기업간의 인재 연결 프로그램, 인적 다양화 활성화 등이 보완되어야 함

정 민 연구위원(chungm@hri.co.kr 2072-6220)

11)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

⑧ Generation Z의 시대

- (정의) Z세대는 1995~2005년에 태어난 세대로 정의되며, 태어난 순간부터 디지털 문화를 접하고 소비한 세대
 - Z세대는 1995~2005년에 태어난 세대(만 13세에서 23세)를 의미하며, 아날로그를 경험하지 못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디지털 문화와 기기를 접하고 소비했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불리기도 함¹²⁾
 - 특히 Z세대는 인터넷 및 IT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한 인간관계에 능하며, 올로(YOLO), 워라밸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님¹³⁾
- (내용) Z세대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 모바일기기가 주요 매체로 부각, 가치 중심적 소비 확대 등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
 - Z세대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 확대: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서 Z세대는 약 646만 명으로 비중은 12.5% 수준
 - 2018년에는 Z세대 중 성인이 약 336만 명, 미성년자가 310만 명으로 성인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Z세대가 에코, N세대에 이어서 차세대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Z세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풍부한 정보들을 통해 가구 내 소비 의사결정에서도 주된 역할을 함¹⁴⁾
 - 모바일기기가 주요 매체로 부각: Z세대에게 사회 의사소통의 주된 통로는 모바일 기기인 반면, TV의 비중은 낮음
 - Z세대의 사회에 대한 의사소통 매체는 모바일 기기로 전체 미디어 사용 중 70%를 차지한 반면, TV는 22%, 컴퓨터는 7% 수준에 그침
 -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모바일기기 사용 비중보다 46%p 증가한 것이고, 이

12) Z세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회적·학문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 다만 본고에서는 Z세대의 정의를 1995~2005년생으로 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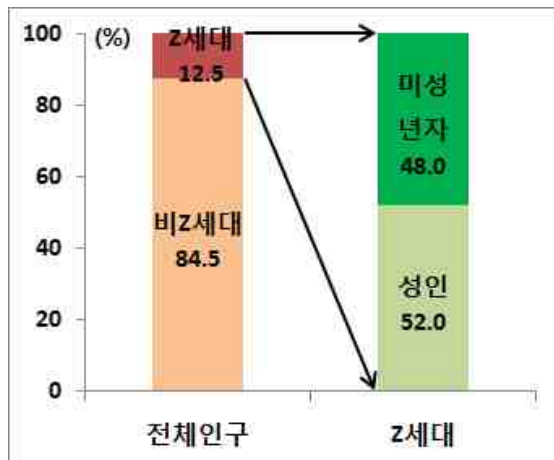
13)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일-가정 양립을 뜻하는 신조어임.

14) 우리나라의 에코세대는 베이비부머의 자식세대로 일반적으로 1979~1988년생을 의미하며, N세대는 1989~1994년생을 뜻함.

전 세대인 Y세대의 모바일기기 사용 비중인 59%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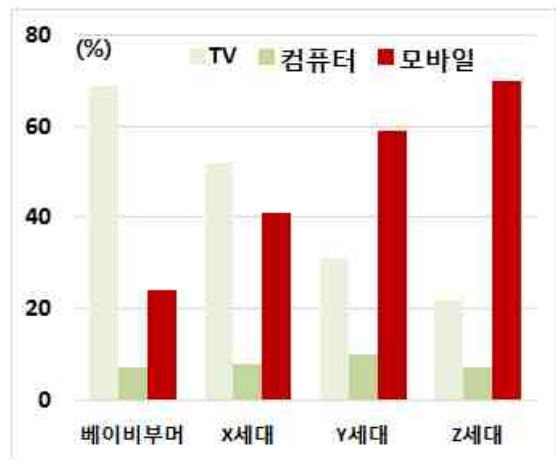
- 가치중심적 소비 확대: Z세대의 주된 인생 모토는 올로(YOLO), 워라밸로 주변 시선, 사회적 구속·통념을 넘어서서 개인·현재·가치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
 -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에코, N세대와 비슷하게 소비지향적인 생활패턴을 보임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 취업난 등을 겪은 세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정도가 높음
 - 시간과 자원 배분 또는 향후 직업 선택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현재·가치 중심적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음

< 2018년 Z세대의 비중 >



자료 : 통계청.

< 세대별 미디어기기 이용시간 >



자료 : Nielsen-Koreancllick.

주 : 미국의 Y세대는 우리나라의 에코, N세대에 해당됨.

- (시사점) Z세대가 경제 및 사회의 주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배분 및 전략을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서 Z세대의 생활 및 소비패턴, 정보 획득 경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함

오준범 선임연구원(jboh19@hri.co.kr 2072-6247)

15) 미국의 Y세대는 우리나라의 에코, N세대에 해당됨.

⑨ Gig Economy 시대의 Flexicurity 실험

- (의미) 기업들이 정규직 형태의 고용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Gig Economy 시대가 도래
 - Gig Economy¹⁶⁾란 산업 현장에서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구하여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
 -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기업들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단기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중개하고 가치를 창출
- (내용) 민간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Gig 경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고용의 Flexicurity¹⁷⁾가 강조될 것
 - 해외에서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기술 확산으로 Gig 경제가 활성화
 - 미국의 경우 Gig 노동자는 2017년 약 580만명에서 2018년 670만명, 2019년 770만명, 2020년 9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
 - 차량, 숙박 등에서 시작한 Gig 경제는 현재 배달, 청소, 법률서비스, 컨설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퍼지고 있음

< 미국 Gig 노동자 전망 >



자료 : Intuit and Emergent Research.

< 국내 비정규직 추이 >



자료 : 통계청.

16) 1920년대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그때그때 섭외해 단기공연 계약을 맺어 공연했던 '긱(Gig)'에서 차용한 용어.

17)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의 합성어.

- 국내 역시 스마트폰 보급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인터넷 환경이 우수하고 4차산업혁명 육성 전략 등으로 Gig 경제가 퍼질 가능성
 - 온라인 기반 중개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작된 Gig 경제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우수한 인터넷 접근 환경이라는 국내 특성 상 확산 가능성 높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 시스템이 소자본, 특화시장, 개인화 기반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노동 형태가 필요
 - 다만 국내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임시직과 차이가 있는 Gig 노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제가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

- 유연한 고용 형태인 Gig 경제 도래는 노동 공급을 늘리고 노동 시장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 도움
 - 노동자는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기업들은 원할 때 Gig 노동자를 고용하므로 근로가 유연해지고 은퇴자, 주부, 청년층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
 - 다만 일자리는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영세 자영업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고용보험, 최저임금 같은 혜택 등을 받지 못할 우려

-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창출 등 고용의 유연성 확대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강조
 -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5천명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
 - 정부는 고용 안정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약 35만명을 증원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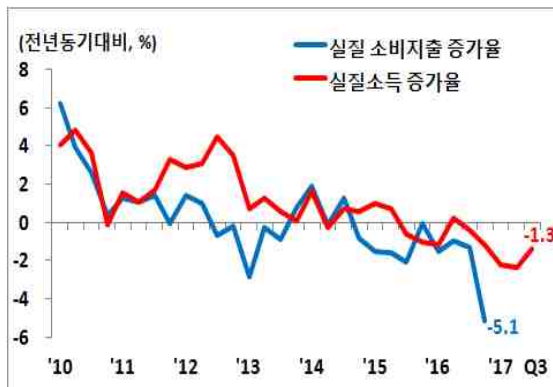
- (시사점)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는 방안으로 Gig 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Gig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확보
 -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점인 낮은 효율성, 정규직 중심의 경직적 고용구조, 청년 실업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Gig 경제의 활성화를 고려
 - Gig 경제 확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질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경제구조개혁 필요

김천구 연구위원(ck1009@hri.co.kr 2072-6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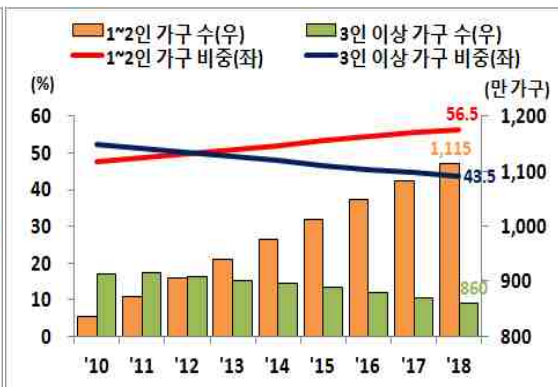
⑩ STEEP 소비

- (의미) 실질소득 정체 및 가구의 소형화로 인해 경제적이고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행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STEEP 소비란 개인 효용(Utility) 극대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2018년 소비 특징을 나타내는 영문자를 조합한 것임
 - 가계의 실질소득 정체, 1~2인 가구 비중 확대 등은 경제적이며 개인의 만족을 높이는 소비행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내용) 2018년 소비의 특징은 공유형(Sharing), 웰빙형(Toward the health), 실속형(cost-Effective), 경험형(Experience), 현재형(Present) 소비이며, 관련 소비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공유형(Sharing) 소비 : 실질소득의 정체로 전통적인 소비 패턴인 물품을 소유하는 소비에서 공유하는 소비로의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비용 절감과 빠른 유행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여 및 중고 시장 등을 활용하는 소비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공유형 소비 시장은 카셰어링, 숙박서비스 뿐 아니라 가정용품, 의류, 장난감 등의 품목까지 범위가 크게 확장될 전망

< 실질 소비지출¹⁸⁾ 및 실질소득 증가율 > < 1~2인 가구 및 3인 이상 가구 전망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1) 1인 이상 가구 기준.
 2) 실질소득은 경상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18)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되어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됨. 따라서 그래프의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 자료는 2016년 4분기까지의 수치임.

- 웰빙형(**Toward the health**) 소비 : 가구의 소형화,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행태가 심화될 전망
 - 2018년 1~2인 가구 비중은 5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웰빙 간편식 소비는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요가, 헬스 등 건강관리형 피트니스 시장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헬스케어기기 시장 등을 중심으로 웰빙형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실속형(**cost-Effective**) 소비 : 비슷한 가격 수준에서도 고품질, 나에게 필요한 기능성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요자 및 공급자 간 소통이 확대되면서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한 소비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는 보다 나은 품질, 개인이 원하는 기능을 지닌 상품을 선호하는 가격 대비 효용을 고려한 소비행태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경험형(**Experience**) 소비 : 스스로 경험하는 소비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문화, 오락 시설 등이 가미된 복합쇼핑몰 및 유통매장 등의 확산으로 직접 체험하며 소비 욕구를 높이는 경험형 소비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쿠킹 클래스에서 만든 음식을 직접 소비하고, 꽃꽂이 클래스에서 직접 꽃바구니를 만드는 등 여가생활과 연계된 경험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
- 현재형(**Present**) 소비 : 미래보다는 현재 소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소비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래를 대비하는 소비활동에서 벗어나 국내외 여행, 맛집 탐방 등을 통해 현재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가계소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기 대응 노력과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가계부채 완화 및 소득 증대 대책 마련이 필요
- 가계 유효수요를 높이기 위한 정책 도입 뿐 아니라 가치 추구 소비행태를 고려한 상품 개발 등 기업차원의 전략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박용정 선임연구원(yongjung@hri.co.kr 2072-6204)